

## 현장시선

김기준  
대한건설협회제주특별자치도회장

제주 경제의 베풀목인 건설산업이 전례 없는 고사(枯死) 위기에 직면했다. 최근 통계청 제주사무소 발표에 따르면, 2025년 기준 도내 건설수주액 감소폭은 전년 동기 대비 1분기 49%, 2분기 70.6% 감소라는 충격적인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2010년 이후 최대 감소폭으로, 전국 평균 감소폭(8.4%)과 비교하면 제주 건설업계의 현실이 얼마나 처참한지 보여준다.

지표의 하락은 현장의 비명으로 직결된다. 지난해에만 도내 건설업체 90곳이 문을 닫았고, 3만6000명에 달하던 건설업 취업자 수는 2만

## 건설산업 고사 위기, 대규모 공공사업이 '구원투수' 돼야

3000명으로 급감했다. 불과 3년 사이 일자리의 30%가 증발한 것이다.

위기의 원인은 복합적이다. 고금리와 원자재·인건비 폭등에 미분양 주택 증가라는 한계가 맞물려 있다. 특히 우려스러운 대목은 경기 하강의 안전판 역할을 해야 할 공공물량의 급격한 위축이다. 민간 건설 시장이 사실상 멈춰 선 상황에서 공공 건설공사는 지역 건설업계가 숨을 쉴 수 있는 유일한 통로다. 그러나 최근 제주 지역의 공공부문 발주 규모는 업계의 기대치에 크게 못 미친다. 전년 대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지역 건설 경제의 동력이 사실상 멈춰섰음을 의미한다.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대규모 국책 및 민간 투자 사업으로 눈을 돌려야 하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제2공항(5조4532억원)과 제주신항(3조8289억원) 사업은 갈등 관리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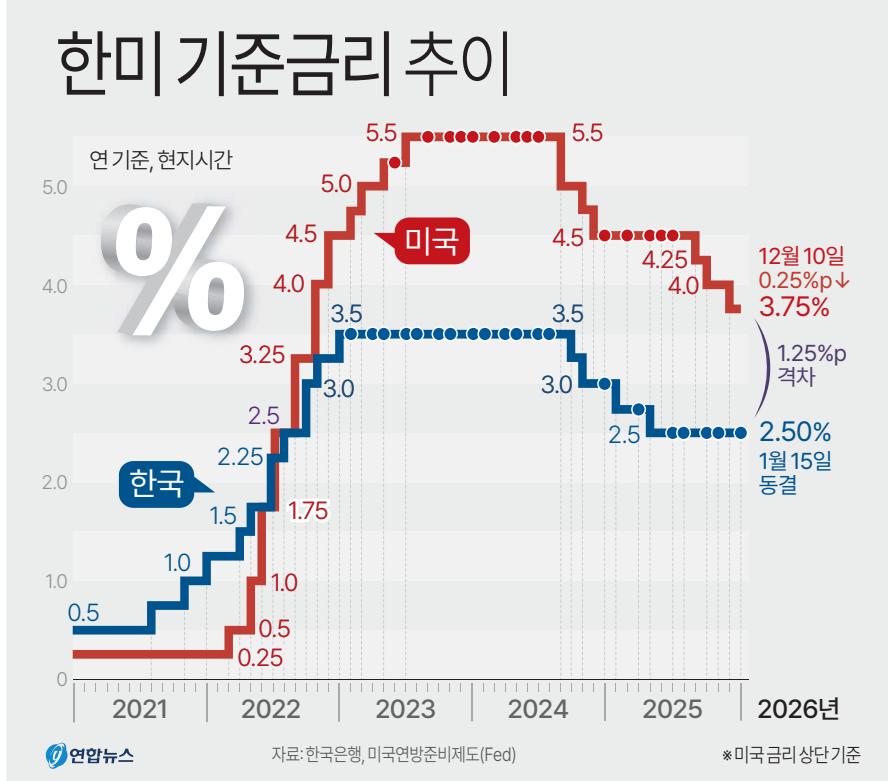
복잡한 인허가 절차로 착공 시점이 불투명하다. 애월포레스트 관광단지나 신천리 리조트 등 대규모 민간 투자 사업 역시 인허가 단계의 진통과 찬반 갈등에 가로막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제주도가 지방채 발행으로 도로 공사 재개 등 물량 확보에 공을 들이고 있으나, 무너진 생태계를 복원하기엔 역부족이다.

이 시점에서 에너지 공기업이 주도하는 약 1조원 규모의 에너지 관련 건설사업(삼양·동북 복합 발전소 및 가스배관 매설공사)은 침체된 제주 건설경기를 되살릴 가장 현실적인 '마중물'이다. 현재 인허가 단계를 밟고 있는 이 사업들이 내년에 적기 착공된다면 일어붙은 시장에 즉각적인 온기를 불어넣을 최적의 대안이 될 것이다. 해당 사업의 가치는 경기 부양 그 이상이다.

이를 위해 세 가지 차원의 협력이

절실하다. 첫째, 사업 주체인 에너지 공기업은 '상생형 프로젝트'의 전형을 보여야 한다. 제주 건설업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 장비·자재를 우선 조달해 경제 파급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둘째, 제주도정과 행정사는 유관 부서 간 긴밀한 협조로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는 행정적 뒷받침에 집중해야 한다. 셋째, 지역 사회는 환경 보전과 산업 발전이 동행해야 한다는 대승적 이해를 보여줘야 한다. 건설산업은 단순한 수치를 넘어 도민의 일자리와 생계를 지탱하는 민생 경제의 뿌리다. 이번 에너지 공공사업으로 제주의 청정 에너지 기반 조성과 지역경제가 동반 성장하길 바란다. 1조원 규모의 사업이 적기에 착공돼 지역 경제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가 재작동하길 촉구하며, 협회 또한 역량을 다해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

## 그래픽 뉴스



<b>한국일보</b>	발행인·인쇄인·편집인 김한옥 편집국장 고대로
제주 대표 신문	④ 6318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사로 154 대표전화 (064)750-2114
인터넷 서비스 <a href="http://www.ihalla.com">http://www.ihalla.com</a> e-mail: <a href="mailto:hi@ihalla.com">hi@ihalla.com</a>	광고접수 본사 750-2828 / FAX 752-7448 서귀포지사 732-5552 / FAX 732-5559
기사제보 750-2200 / FAX 752-9790	구독신청·배달 750-231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1989년 4월 22일 창간 / 등록년월일: 1988. 12. 5 등록번호: 제주, 기00002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아버지 진주강공 규진(선진인쇄사 사장(대표) · 향년 69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 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립이 도리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26년 1월 16일

배우자 손정순

아들 강태인

딸 강경연

사위 김성연

##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아버지 진주하공 장윤(前 애월농협 조합장, 향년 82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 속 깊이 감사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립이 도리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26년 1월 16일

배우자 김순희  
아들 하성엽  
경덕  
성현  
며느리 김경선  
홍옥순

## 상속한정승인 공고

· 피상속인: 망 전근현(1962. 03. 25. 생)  
· 최후주소: 제주시 동문로 16길 11-7, (일도이동)

상속자는 2025년 9월 25일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들은 2026년 1월 12일 제주지방법원 2025년 61호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수리 받았습니다.

이에 민법 제10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나니 제권자와 수증자는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은 자는 청산에서 제외됨을 최고합니다.

- 다음 -

1. 신고기간: 본 공고일로부터 2개월간  
2. 신고처: 제주시 화암로 87, 104동 704호  
(삼양아이동, 애너이치아프제주화암1단지)

2026. 1. 16.

공고인(상속한정승인자) 전소영, 전소희

## 묘지 후손 찾기

토지 대장에서 주소 없이 이름만  
등록되어 있는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상속자(주인)를 찾아드립니다.

후손 찾기 한달 이내  
가능합니다.

- 지목에 관계없이 모든 토지 후손 찾으드립니다.
- 등기는 되어 있으나 주소가 바뀌어 소유자를 못 찾는 경우
- 소유권 이전 분쟁시 승소 가능 자료를 찾아드립니다.

묘지전문

제주토박이

제주누리 미등기 토지 연구소  
신소장 ☎ 010-7305-7819

## 백도라지 분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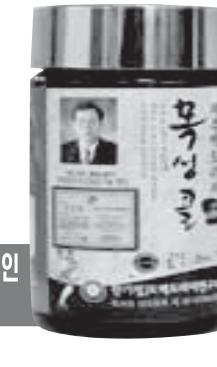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콜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 명인  
2009 백도라지 명인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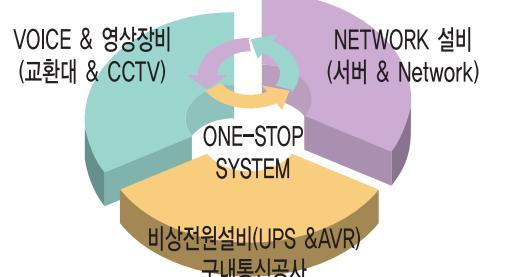
선흘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 JK 약백도라지연구소

## 정보통신의 미래 ⇒ 티엔정보기술(주)



고객을 위한 통합  
SOLUTION 제공



◆ 열린 기술 습득 ◆ 기술인력 개발  
◆ 고객 중심 사고

**TN 티엔정보기술(주)**

Telecom & Network Information Technology

본점: 제주시 이도1동 1248-49번지  
전화: (064)722-0992, FAX: (064)725-0993

## 사설

## 어구관리제도 대폭 강화 늦었지만 다행

어구관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제도가 시행된다. 페어구에 대한 즉각적인 철거와 관리대책 수립이 주요 골자다.

해양수산부는 새로운 어구관리제도 시행에 따른 세부사항을 규정한 수산업법 시행령과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행은 4월 23일부터 이뤄진다. 개정안에는 불법·무허가로 설치된 어구를 발견 즉시 신속히 철거할 수 있도록 하는 불법어구 즉시 철거 제도가 포함됐다. 또 어구의 과다 사용을 막고 페어구를 적법하게 처리하기 위한 어구관리기록제와 유실어구신고제도도 도입된다. 페어구의 효율적인 수거와 선박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유실어구신고제도 시행된다. 어구관리기록제와 유실어구신고제의 경우 근해어업부터 시행한 후 연안어업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철거된 어구·시설물의 보관·처

## 제주 일회용품 보증금제 확대 잘하고 있다

정부가 일회용품 보증금제 전국 확대에 대해 눈치를 보는 사이 제주도가 15일 시행 의무화 대상 을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뿐만 아니라 소규모 카페 등 전 매장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자원재활용 법을 개정해 지난 2022년 6월부터 일회용 컵 보증금제에 대한 전국 시행 근거를 마련했지만, 그해 5월 '도입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며 시행 시기를 6개월 미뤄 같은 해 12월부터 제주와 세종시에 한해 시범 운영했다. 정부는 이후 수차례 방침을 바꿨고 지난해 출범한 이재명 정부도 보증금제 효과가 미미하다며 '컵 따로 계산제' 도입을 발표했다. 정부는 '컵 따로 계산제'는 소상공인의 규제 이행부담이 문제 됐던 일회용 컵 보증금제의 대안으로서 설계된 제도라고 밝히고 소비자가 일회용 컵 사용에

따라 부담하고 있는 비용을 별도로 인식할 수 있게 돼 대회용컵 사용으로 이어질 것으로 막연한 기대를 강조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매장 참여율과 컵 반납률이 저조한 점을 내세워 '컵 따로 계산제'가 대안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기도 했다.

하지만 제주지역의 일회용 컵 회수율은 지난 2023년 50.5% 2024년 54.5%에서 지난해의 경우 60.0%로 오르는 등 도민의 참여 열기는 뜨거웠다. 오히려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정책방향이 회수율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걱정해야 하는 점도 이해 하지만 '탈 플라스틱 정책'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는 점에서 정부는 제주도의 이번 결정을 적극 환영하고 전국으로 확대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